

치열한 두뇌 싸움... '빙판 위의 체스' 컬링

1924년 올림픽서 첫 등장...1998년 나가노 대회 때 정식 종목 채택

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컬링은 치열한 두뇌 싸움이 펼쳐져 동계올림픽에서 '빙판 위의 체스'로 불린다. 빙판 위에서 19.96kg짜리 스톤(원형 돌)을 손으로 밀어 하우스라고 부르는 둥근 표적에 올려놓는 경기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컬링 '팀 김(강릉시청)'이 갑작 은메달을 따 인기 종목으로 급부상했다.

컬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팀 스포츠 중 하나로 꼽힌다.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컬링은 연못과 호수 위 얼음에서 돌을 미끄러뜨려 승부를 겨룬 것이 지금의 형태로 발전했다.

1924년 사모니 올림픽에서 남자부 경기가 처음 열렸는데, 이후 제외됐다가 1936년 시범 종목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올림픽 정식으로 인정받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다시 사라졌던 컬링은 1998년 나가노 대회 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1회 대회와 달리 여자부도 시작됐다.

믹스더블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다. 경기 방식은 단순하다.

리드, 세컨드, 서드, 스킵으로 부르는 4명이 한 팀을 이뤄 빙판 위에 그려진 하우스에 스톤을 가까이 보내는 팀이 승리한다.



다. 이를 위해 스톤을 어느 위치에 처음 배치하고, 어떤 구도를 짤지를 치밀하게 계산해야 한다. 상대 스톤보다 버튼에 가까운 스톤의 수만큼 점수를 얻는다. 컬링의 정교한 컨트롤을 담당하는 건 빙판을 닦아내는 빗질, '스위핑'이다. 타이밍과 정도, 세기에 따라 스톤의 운명이 좌우된다.

최종적으로 하우스 중앙의 가장 작은 원인 '버튼'에 스톤을 가깝게 높은 팀이 해당 엔드의 승자가 된다. 상대 스톤보다 버튼에 가까운 스톤의 수만큼 점수를 얻는다. 컬링의 정교한 컨트롤을 담당하는 건 빙판을 닦아내는 빗질, '스위핑'이다. 타이밍과 정도, 세기에 따라 스톤의 운명이 좌우된다.



아울러 매 경기 다양한 변수에 맞춰 스톤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혼성 2인조 경기인 믹스더블은 8엔드로 진행되며, 엔드마다 각 팀은 6개의 스톤을 사용한다. 엔드 시작 때 스톤을 미리 전략적으로 배치해, 실제로 투구하는 스톤은 팀별로 5개다. 경기 시간도 남녀부와 비교해 1시간30

분에서 2시간 정도로 비교적 짧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여자부에서 김은지 스킵이 이끄는 경기도청 팀이, 믹스더블에서는 김선영(강릉시청)-정영석(강원도청) 조가 메달 사냥에 나선다. 남자부는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두 종목 모두 10개 팀이 출전해 풀리그를 벌인 뒤 1위와 4위, 2위와 3위가 준결승

에서 맞붙어 결승 진출 팀을 가린다. 캐나다와 스웨덴, 스위스 등 북미와 유럽이 전통적인 강호로 꼽힌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메달권 후보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 8위를 기록했던 여자 컬링은 2018년 평창 대회 때 은메달을 따고, 2022년 베이징에선 팀 김이 다시 한번 본선에 올랐지만 입상에 실패했다. /뉴시스

여자 컬링 경기도청, 한국 컬링 사상 두 번째 메달 도전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경기도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컬링 사상 두 번째 메달에 도전장을 던진다.

스킵 김은지,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핏스 설예지로 이뤄진 경기도청은 팀워크로 푼 푼 맞춰 메달을 목표로 달린다.

경기도청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컬링 사상 최초로 올림픽 출전을 이룬 팀이다. 당시 경기도청은 '컬스테이'로 인기몰이를 하면서 한국에 컬링을 알렸다.

당시 멤버 중에서는 스킵 김은지만 남아있다.

경기도청은 '5G'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 선수 5명 중 4명의 이름이 '지'로 끝나고, 설예은이 평소 먹는 것을 좋아해 '돼지'라고 불려서 '5G'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5명 모두 경기도 의정부시 송현고 출신이고, 설예은과 설예지는 쌍둥이 자매다.

말연니 김은지와 막내인 서드 김민지는 9살이나 차이가 나지만, 남다른 팀워크를 자랑한다. 선후배 간의 엄격함은 찾아보기 힘들고, 활발하게 소통하며 친구처럼 지낸다. 인터뷰를 할 때도 유쾌함이 넘친다.

리드 설예은은 "우리는 팀워크가 무척 좋은 팀이다. 분위기가 밝은 것이 우리 팀의 매력"이라며 "매력을 보여주다면 성적도 따라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년 6월 열린 2023-2024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강릉시청 '팀 김'을 꺾고 태극마크를 단 경기도청은 이번 시즌까지 세 시즌 연속 태극마크를 달았다.

단단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청은 세계 정상급 기량을 뽐냈다. 이들은 2023-2024시즌 범태권선수권대회 우승, 그랜드슬램 대회 '내셔널'에서 정상에 섰다.

그랜드슬램 대회는 상급 규모와 출전 선수 수준이 높은 6개 국제대회를 말하는데, 마스터스·내셔널·캐나다인 오픈·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등 4개 메이저대회를 포함한다. 한국 팀이 내셔널에서 우승한 것은

2024년 세계선수권 동메달·2025 하얼빈 동계AG 금메달 한국 컬링 역사상 올림픽 메달 2018년 여자부 은메달 유일



중국 하얼빈 평양 컬링아레나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여자컬링 결승전 경기에서 중국을 7-2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한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왼쪽부터 설예은, 설예지, 김수지, 김민지, 김은지.

경기도청이 최초였다. 2024년 3월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컬링 강국들과 경쟁해 당당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24-2025시즌에는 그랜드슬램 대회인 캐나다인 오픈, 내셔널, 마스터스에서 연달아 예선 탈락하며 아쉬움을 삼켰지만, 시즌 막바지인 2025년 2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는 전승 우승의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청은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예선 8경기에 이어 준결승, 결승까지 10전 전승을 거두며 '퍼펙트 골드'를 일궜다.

지난해 3월 안방인 경기도 의정부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동메달 결정전까지 올랐지만, 중국에 패하면서 4위에 만족했다.

다만 경기도청은 지난해와 올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4위의 성적을 내며 한국 컬링에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4인조 출전권을 안겼다.

경기도청은 지난해 6월 열린 2025-2026시즌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자신들이 따낸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2년 전 이번 동계올림픽이 열린 코르티나담페초의 경기장에 침을 바르고 왔다"고 말할 정도로 간절

했던 올림픽 출전을 현실로 만들었다. 올림픽 출전 꿈을 이룬 경기도청은 지난해 10월 미국 미네소타주 버지니아에서 열린 2025 범태권선수권대회(PCCC)에서 동메달을 수확하며 기대를 부풀렸다.

경기도청은 여자부 팀 세계랭킹에서 3위를 달리고 있어 유력 메달 후보로 손꼽힌다.

한국 컬링이 역대 올림픽에서 따낸 메달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팀 김' 강릉시청(스킵 김은지)이 따낸 은메달이 유일하다.

경기도청이 메달 꿈을 이루려면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등 컬링 강국을 넘어야 한다.

12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서는 스킵 김은지는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헛되지 않도록 올림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 꼭 금메달을 걸고 돌아오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설예은은 "금메달을 따는 명장면을 연출하고 단상에 올라가 춤을 추고 싶다. 어떤 춤을 출지는 비밀이지만 팀원들을 설득하겠다"면서 "재미있게 올림픽을 마치고 돌아와 다같이 '유키즈 온 더 블럭'을 나가고 싶다"고 유쾌한 출사표를 전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아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안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레이아웃, 오픈 커피스테이션 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무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세무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현대산업개발